

<글말교실 소감문>

글쓰기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수님을 통해 글말교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. 강의를 수강하는 것만으로는 수강인원이 많아서 내 글쓰기의 침삭 부분을 자세히 알기 어렵고 비교적 글쓰기 실력이 글말교실을 수강하고 난 뒤에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글말교실을 통해 조재현 교수님께 일대일 줌으로 글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대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 혼자만 생각해서 나올 수 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같이 고민해보며 나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. 평소에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상식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글쓰기 강의를 통해 배운 기본적인 참고문헌 작성 방법, 소재목 구분하기 등이 내 글쓰기 실력에 바탕이 되었다면 글말교실은 기본적인 틀보다는 진정으로 내 생각을 최대한 끌어내어 글에 적합한 부분에 넣을 수 있었다.

무엇보다 내 생각에서는 이 글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더 고칠 게 없다고 여긴 부분을 교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완전히 색다른 의견으로 제시해 주셔서 글이 원본보다 훨씬 독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도록 바뀔 수 있었다. 평소 성격이 내가 한 모든 것에 누군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타인의 의견보다는 나의 의견을 많이 피력하는 편이다. 글말교실을 통해 이 성격 또한 고칠 수 있었다. 나쁘게 말하면 남의 의견은 잘 듣지 않고 나의 의견이 100% 바르다고 여기는 좋지 않은 성격인데 글말교실에서 무조건 바르다고 생각해 침삭이 필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 나의 실력으로만 작성한 글보다는 제삼자가 내 글을 읽고 느낀 감상을 내 글에 반영하는 게 글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깨달았다. 글을 침삭 받으려면 원래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무료로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글에 관해 얘기를 나누며 수준 높은 글로 침삭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오히려 돈을 번 느낌이다.

하지만 글쓰기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글말교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나쳤을 것 같다. 교수님의 권유로 알게 되었지만, 내 글쓰기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글말교실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글말교실에 대한 홍보가 더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On 국민뿐만 아니라 글쓰기나 영어 관련 강의에 적극적으로 추천하면 많은 학생이 알 수 있을 것 같다. 평소라면 글을 쓰고 난 뒤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느낀 점을 묻는 것이 다였는데 이번 기회로 자세한 코칭을 받을 수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었고 일대일 줌을 통해 활동하고 난 뒤 관심이 생겨 더 찾아보니 영어도 코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이름이 글말교실이어서 한국어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영어도 코칭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다. 영어는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들고 나한테 가장 힘든 공부를 말하라고 하면 영어가 1순위일 정도로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나중에 영어 실력을 키워 글말교실을 통해 나의 영어 실력을 한번 점검받고 더 향상할 수 있도록 영어 코칭도 참가해 봐야겠다고 다짐했다. 글말교실을 통해 내 글쓰기 실력의 문제점과 생각을 가둬 놓지 말고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어도 그렇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.